

코오롱, 영업 턴어라운드 확인

대우증권, 산업자재부문 수익 안정적 ... 주력 화학제품 점유율 60-70%

대우증권은 12월11일 코오롱에 대해 최근 유럽지역 IR(기업설명회)을 통해 전형적인 턴어라운드주라는 사실이 재확인 됐다며 투자 의견 <매수>에 목표주가 6만원을 유지했다.

이용주 애널리스트는 “코오롱은 12월 3-6일 런던 등 유럽지역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 IR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”며 “코오롱이 전형적인 턴어라운드주이어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”고 말했다.

또 산업자재 부문에서 타이어코드나 산업용 원사 등은 추가적 성장은 없지만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감안하면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고 에어백과 아라미드(Aramide)는 지속적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.

화학 부문에서도 석유수지, 페놀수지, 고흡수성 수지 등 주력제품의 내수 시장점유율이 60-70%에 이를 정도로 우월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석유화학 부문도 틈새시장으로서 대형 화학 메이저들의 진입 가능성이 낮아 앞으로도 7-8%의 안정적 영업이익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.

그리고 필름 부문도 2006년 3%에 불과했던 광학용 필름 매출 비중이 2008년에는 35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평균 판매가격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 폭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12/11>